



# 시편연구사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

김태경(김신대)

## 1. 들어가는 말

1990년 이후 시편 연구의 무게 중심은 궁켈(Hermann Gunkel)<sup>1)</sup>에 의해 시작된 양식비평으로부터 더욱 더 물러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시편 연구자들은 더 이상 개별 시들의 저자, 시의 기원 및 삶의 자리 등, 시의 전(前) 역사에 대한 탐구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시적 접근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석학적 다양성은 크게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구약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편 연구 경향을, 외국 학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한국 학자들의 연구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출간된 실로 방대한 양의 문헌들과 자료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관계로 주요 경향들만을 분석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1) Herman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세 가지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는 문학, 수사, 구조주의 등 신문학 비평을 통한 ‘시’의 구조 및 언어 나아가 이미지 분석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sup>2)</sup> 둘째는 시의 현재 위치에서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개별 시, 혹은 소단위 시 묶음들 혹은 시편 전체의 신학적 편집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학적, 이데올로기적, 여성학적, 해체주의적, 독자 반응적, 생태학적, 심리학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본문의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찌됐건 시편에 대한 연구 방법들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적 내지는 혼합적이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벨링거(William H. Bellinger)는 한 편의 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 즉 본문비평, 구조주의비평, 양식비평, 독자반응비평, 정경비평<sup>3)</sup>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인류학적, 언어 철학적, 종교적, 문학적 비평 방식을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전체 성서해석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시편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방법 현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선호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워드(David M. Howard)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방식들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닌 위험성, 즉 시의 저자와 본문의 의미는 철저히 뒤로한 채, 해체주의적이고 독자반

2) 예를 들어 김형준은 시편 90편을 본문 내재적 접근법(a text-imman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한다. 본문의 역사성 보다는 형태적(morphological), 구문론적(syntactic), 문체론적(stylistic) 그리고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시적 관습(conventions)에 따라 해석한다. 김형준, “본문 내재 접근법에 의한 시편 90편 연구”, 『구약신학저널』3 (2001년), 66-94.

3) 예를 들어 김정우, “시편 89편의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 (1990년, 가을), 6-32. 그 밖의 공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다수의 개별시편 연구들 즉 시편 33, 40, 42, 89:2-5, 89:29-38등 이 있고, 나아가 세 편의 주석서가 있다.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김정우, 『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4) Williams H. Bellinger, “(A) hermeneutic of curiosity and readings of Psalm 61”, (SOTL, 1;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5).

용 비평적인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sup>5)</sup> 그러나 이외는 달리 시편 연구의 다양한 해석 방식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통시적 방법과 최근의 공시적 방법들을 함께 결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도 있다.<sup>6)</sup> 이러한 연구 추세에 직면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199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편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최근 시편 연구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로 막대한 자료들을 모두 취급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한국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의 주된 연구흐름과 자료들을 위주로 하여, 전통적인 양식비평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특징인 시편의 우리말 번역과 관련한 노력들에 이르기 까지 살펴보고자한다.

## 2. 최근 시편 연구의 흐름

### 1) 양식비평

궁켈 이후 양식비평은 양적인 면에서 매우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궁켈의 미진한 연구 부분을 보충하고 교정하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스터만(Claus Westermann)과 크라우스(Hans J. Kraus)는 궁켈의 시의 명칭을 다소 수정하기도 하고<sup>7)</sup>,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시들을 다시 범주화하기 한다.<sup>8)</sup> 이 밖에 개별 시들의

5) David M. Howard, "The Psalms and Current Study," in David G. Firth and Philip S. Johnstone (eds.),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5), 34.

6) 윗글, 20-23.

7) 베스터만은 감사시를 찬양시로 간주하기에 감사시를 설화적 찬양시로 찬양시를 묘사적 찬양시로 명명한다. Claus Westermann, *Lob and Klage in den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Hans J. Kraus, *Psalmen 1: Psalmen 1-59* (BKA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8) 브루거만은 정위의 시편(Psalms of orientation), 혼미의 시편(Psalms of disorientation), 새로운 정위의 시편(Psalms of reorientation)으로 구분한다. 월터 브루거만, 『브루거만의 시편 사색』(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7).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Praying the Psalms* (Winona, Minn.: Saint Mary's Press, 1993).

구조와 모티브 및, 삶의 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주로 개인 탄원시, 지혜시, 찬양시 및 제왕시 영역에서 진행 되고 있다.

(1) 한국 학자들의 경우

① 개인 탄원시

한국 학자들의 양식비평은 저조한 가운데, 주로 개인 탄원시와 지혜시 및 찬양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sup>9)</sup> 우선 개인 탄원시의 경우, 주요 논제들은 구조 및 모티브의 변화와 적의 정체성 및 시인이 고난 받는 이유이다. 우선 시의 구조 변화의 경우 누구보다도 김이곤에 의한 양식비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개인 탄원시의 어려운 연구 대상 중 하나인, 구조의 급격한 변화, 즉 시인이 어찌하여 탄원을 하고 난 후, 돌연 승리와 기도 응답의 확산, 원수들의 패배라는 기고만장한 확산에 넘어가는 분위기로 전환 하는지,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을 연구한다. 김이곤은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급격한 분위기 반전의 이유를 아웨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 즉 전쟁용사로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거룩한 전쟁 이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이에 대해 김정우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 모티브를 탄원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찬양시(시 8)와 감사시(시 30) 등 다른 시들 영역에도 적용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sup>11)</sup> 반면 김이곤과는 달리 이성훈은 기존의 해석방법을 탄원자의 신학적, 심리적, 제의적 해석 방식으로 보완하

9) 방석중의 경우는 예언적 성격을 띤 제의적 기도문에 해당하는 시편 50편을 문학비평적, 양식비평적 방법을 통해 이 시가 남북의 시온전통과 시내 전통이 융합된 포로후기 예언적인 레위 씨족에서 종교내부와 세속적 영역에서 반복되는 비리들, 부정부패,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양심의 회복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사제의 설교라고 본다. 방석중, "시편 50편 연구", 『성경원문연구』 5호 (1999년 8월), 94-105.

10) 김이곤, "시편 6편에 나타난 분위기 급전의 동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집 (1995년 9월), 181-204. 또한 김이곤, 『시편 시문학의 신학』 (서울: 한들 출판사, 2006), 109-200. 김이곤, "시편 3편의 분위기 급전에 끼친 거룩한 전쟁 이념의 영향", 『한신논문집』 11 (1994년 11월), 5-27 참고.

11) 김정우, "시학과 한시의 관점에서 새롭게 본 시편의 분위기 급전", (김영일 외 엮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 2006), 479-505.

고자 한다. 그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탄원과 함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공존하고 있는 이유는 시편 기자의 믿음, 즉 야웨와의 계약 관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나는 야웨의 헤세드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2)</sup>

나아가 한국 학자들의 개인 탄원시에 대한 양식비평에 대한 연구는 또 하나의 어려운 논제들 중 하나인 시인과 원수의 정체성과 그들의 관계 및 시인이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 집중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손세훈이 했는데, 그는 시인의 정체성과 원수의 정체성을 각각 정리해 본 후, 그 둘의 관계성을 다각적인 측면, 즉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sup>13)</sup> 한편 시인이 고난 받는 이유와 관련하여 김태경은 시인의 고난에 해당하는 질병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아픈 자의 시들을 발췌하여 각 모티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인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악화에 따른 신학적 입장의 변화를 고찰하기도 하였다.<sup>14)</sup>

## ② 지혜시

지혜시의 경우 궁궐 이래로 지혜시로 규정할 만한 특정 구조가 발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혜시의 범위 및 삶의 자리에 관한 연구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순태는 지혜시의 기원과 배경을 지혜전승의 기원이 되는 가족/부족, 학교, 성전, 회당의 지혜적 역할과 에토스에서 그 배경을 찾는다. 따라서 그는 지혜시의 삶의 자리는 특정 시대와 장소에 국

---

12) 이성훈, "개인 탄원시에 있어서 찬양으로의 변화에 대한 해석상의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개념", 『구약논단』 9 (2000년 9월), 191-213. 따라서 이성훈은 개인 탄원시의 신학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성훈, "탄원에서 구원의 찬양으로: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년 7월), 191-214; 이성훈, "하나님의 인자 개념과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구원의 기쁨", 『성경과 신학』 29 (2001년), 372-410.

13) 손세훈, "시편 개인 탄원시 이해: 시인과 원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15 (2003년 10월), 65-94. 또한 손세훈, "시편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시인과 원수의 관계", 『민중과 신학』 1 (2000년), 52-67 참고.

14) 김태경,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른 탄원의 변화 과정 연구", 『구약논단』 45 (2012년 9월), 207-234.

한할 수 없다고 본다.<sup>15)</sup> 이렇듯 지혜시의 삶의 자리를 찾으려는 또 다른 시도는 김래용이 한다. 그는 시편 78편을 분석하여 이 시에서 기원전 4세기 말 이후에 일어난 정통성 문제, 즉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의 사이의 갈등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합법적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았다.<sup>16)</sup> 이렇듯 지혜시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시편을 신앙적인 시로서만 읽지 않고 시가 씌어진 시대적 상황을 보고자 하는 역사 비평적 흐름에 닿아있다. 이러한 시도로서 김태경 역시 지혜시를 규정하는 큰 틀을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운명에 대한 대조라고 보고, 지혜시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사회분열에 따른 신정론적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 사회 상류층의 신학화된 지혜라는 생활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sup>17)</sup>

### ③ 찬양시

찬양시에 대한 개별 연구<sup>18)</sup>와 더불어 찬양시는 감사사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애매하게 구분되기에 감사사와 더불어 연구되기도 한다. 류행렬은 찬양시를 감사사와 함께 면밀히 분석한 후, 두 시가 찬양 요소를 공유하는 것은 원래 다른 상황에서 발전했으나 점차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고마움의 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고난의 상황에서 유발된 찬양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반면, 찬양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자비에 대한 보편적인 찬양임을 주지한다.<sup>19)</sup>

15) 이순태, 「시편속의 지혜: 지혜시의 양식 분류에 관한 연구」(서울: 도서출판 한빛, 1996).

16) 김래용, "78편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조, 장르, 삶의 자리, 의도",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29-48.

17) Tae-Kyung Kim, *Frömmigkeit in der Weisheit* (Frankfurt: Peter Lang, 2008).

18) 오영걸, "시편에서의 찬양시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대학 기독교교육학회 논문집」, 2 (1998), 1-26.

19) 류행렬, "찬양시와 고마움시의 한 연구", 「신학이해」, 9 (1991), 11-23.

## (2) 외국학자들의 경우

### ① 개인 탄원시

세 가지 범주, 첫째, 적의 정체성, 둘째, 시편의 화가자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현상, 셋째, 시의 구조 변화, 즉 탄원에서 찬양 맹세로 전환된 후, 다시 탄원으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휘스(David G. Firth)는 13개의 개인 탄원시를 발췌하여 악의 종류를 구분한 후, 시인의 간구는 적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인과응보임을 주장한다.<sup>20)</sup> 만돌포(Carleen Mandolfo)는 시의 1인칭은 시인 자신이나, 3인칭은 시인의 시각을 교정하는 신명기적 교훈으로 본다.<sup>21)</sup> 한편 빌라네바(Federico G. Villanueva)는 베그리히(Joachim Begrich)가 발견한 찬양 확신(Gewissheit der Erhellung) 모티브가 모든 개인 탄원시에 자주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찬양에서 탄원으로 넘어가는 현상의 이유와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sup>22)</sup>

### ② 지혜시

지혜시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개념의 기준을 넓게 잡는 극대주의자들(maximalist)이 있는 반면, 좁게 잡는 극소주의자들(minimalist)이 있다. 특히 와이브레이(Roger N. Whybray)는 비록 지혜시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통상 지혜시의 특징이라고 보는 주제들 즉 인과응보, 아쉬레, 삶의 덧없음 등이 사실상 구약 성서 전반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와이브레이는 지혜시를 다른 시들과 명확히

---

20) David G. Firth, *Surrendering Retribution in the Psalms: Responses to Violence in the individual Complaint*(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5).

21) Carleen Mandolfo, *God in the Dock: Dialogic Tension in the Psalms of Lament* (JSOT Sup. 3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22) Federico G. Villanueva, *The 'Uncertainty of a hearing': A Study of the sudden Change of Mood in the Psalms of Lament*(VT Sup. 12; Leiden: Brill, 2008).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sup>23)</sup> 크렌쇼(James L. Crenshaw) 역시 지혜시를 구분하는 모든 기준들이 구약성서 전반에 흩어져 있기에 오직 지혜시만의 특징임을 거부한다.<sup>24)</sup> 이에 반해 쿤츠(John K. Kuntz)<sup>25)</sup>는 잠언, 욥기, 전도서에 나타나는 문체적, 주제적 특징이 시편 1편, 32편, 37편, 49편을 지혜시로 보게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삶의 자리와 관련하여서는 델(Katherine J. Dell)<sup>26)</sup>과 퍼듀(Leo G. Perdue)<sup>27)</sup>가 지혜시에도 제의적 삶의 자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제왕시

스타벅(Scott R. A. Starbuck)은 시편 제왕시에는 수메르, 아카드, 이집트, 히타이트의 제왕시와는 달리 당시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왕권을 이데올로기화 하려는 의도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한다.<sup>28)</sup> 한편 사우어(Markus Saur)는 제왕시 본문에서 포로기 이전 층과 이후 층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학적 의도를 밝히면서, 제왕시들이 미래 다윗 왕국의 전형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시편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sup>29)</sup> 헤니(Michael R. Haney)는 제왕시의 삶의 자리를 ‘축제’라고 주장하며, 왕을 전 우주에 걸친 야웨의 대리

23) Roger N. Whybray, "The Wisdom Psalms", in John Day, *Wisdom in Ancient Israel: Essays in Honour of J. A. Eme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52-160.

24) James L. Crenshaw, "Wisdom Psalms?" *Biblical Studies* 8:9-17 (1997), 142-167.

25) John K. Kuntz, "Reclaiming Biblical Wisdom Psalms: A response to Crenshaw",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2 (1998), 145-154.

26) Katharine J. Dell, "I will solve my riddle to the music of the lyre:(Psalm xlix 4(5)): A cultic setting for Wisdom Psalms", *Vetus Testamentum* LIV, 4 (1998), 445-458.

27) Leo G. Perdue, *Wisdom and Cult: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ws of Cult in the Wisdom Literatures of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BLDS, 30;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28) Scott R. A. Starbuck,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BLDS, 172; Atlanta, CA: SBL, 1999).

29) Markus Saur, *Die Königpsalmen* (BZAW, 340;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인으로 본다.<sup>30)</sup>

## 2) 시들의 현재 위치와 배열에 따른 편집의도

1985년 윌슨(Gerald H. Wilson)의 논문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sup>31)</sup> 이후, 시편 150편의 최종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편집 의도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예를 들어 쟁어(Erich Zenger)와 호스펠트(Frank L. Hossfeld)는 세 권의 방대한 주석서에서 앞뒤 시들의 이음새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 현재 위치와 배열에 대한 신학적 의도를 끌어내고자 한다.<sup>32)</sup>

### (1) 한국학자들의 경우

#### ① 최종 형태 편집 의도

1990년대 들어서 한국 학자들의 시편 연구의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의 현재 배열상태에 대한 체계성과 당위성을 연구하는 작업이다. 우선 박경철은 주제와 단어 분석을 통해 시편 전체 150편 한권의 현재 위치(배열)에 대한 편집적 짜임새를 연구하였다.<sup>33)</sup> 손세훈은 최종 편집과 관련하여 표제어를 분석하였고,<sup>34)</sup> 왕대일은 윌슨과 쟁어 및 박경철과 같은 시각에서 진지한 사색을 통해 시편 한권 읽기를 시도한다. 시편 전체 다섯 권에서 다섯 마당이 펼쳐지는 짜임새, 생김새, 쓰임새, 매무새를 살펴본다. 시편 다섯 권의 현재 매무새를 갖추기

---

30) Michael R. Haney, *Text and Concept Analysis in Royal Psalms* (SiBL, 30; New York: Peter Lang, 2002).

31)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32) Erich, Zenger/ Frank L. Hossfeld, *Die Psalmen I; 1-50* (NEB 29; Freiburg: Herder, 1993); *Die Psalmen 51-100* (KThKAT; Freiburg: Herder, 2000); *Psalmen 101-150* (KThKAT; Freiburg: Herder, 2000).

33) 박경철, "한권으로 읽는 시편" (김영일 외 엮음), 위의 책, 11-57.

34)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36 (2010년 6월), 92-115.

까지의 경로에 대한 추측들로서 1-2편이 들머리이고, 마지막 146-150편은 마무리라면 그 사이의 바탕글인 3-145편은 탄원시에서 찬양시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는 탄식에서 찬양, 즉 창조세계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질서,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 뒤의 부활의 승리라는 성서적 진리를 따름이라고 본다.<sup>35)</sup> 나아가 시편은 길, 도, 즉 하늘을 향해 걸어가 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토라로서 하나 속에 다섯이 있고, 다섯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다.<sup>36)</sup>

## ② 소규모 단위 시 묶음들의 편집의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주로 김성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성수는 개별 시들을 시편 전체 한권의 구조 안에서 보면서 동시에 이웃하는 주변 시들과의 문학적 주제적 연관성을 관찰함으로써 시들의 최종 형태 배열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도 및 의미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시들의 내적구조와 어휘 및 주제들의 상관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편 25-33편, 시편 15-24편 및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편집적 의도 및 의미를 연구하였다.<sup>37)</sup> 이렇듯 앞뒤 시들과의 철저한 주제 및 어휘 구조 분석을 통해 시들의 현재 위치가 말해주는 체계적인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 밖에도 이은애의 경우, 시편 93-100편 야훼-왕 찬양시를 연구했는데, 이 시들의 상호 연관성과 제사 권에서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여 이 시들은 왕이신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시온

35)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토라로 토다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36) 위의 책, 62.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네 장에서는 개론적으로 시편을 시로 일어아함과 시편의 독법 및 시편의 들머리에서 시편과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 즉 시로서의 시편, 표제어, 시를 느끼기 위한 시의 언어, 형식, 소재, 주제 등에 관한 문제, 즉, 시의 유형, 시의 연대 문제를 그의 차분한 언어로 정리해 주고 있다. 3장과 4장은 시편의 들머리인 시편 1편과 2편을 해설해준다. 그 후 시편 각 다섯 권을 나름대로 사색한 후, 예수 그리스도와 시편으로 마무리한다.

37) 김성수, "시편에도 문맥이 있는가", 『목회와 신학』, 189 (2005년 4월), 184-190; 김성수 "문맥으로 시 25-33편 읽기", 『구약논단』, 48 (2013년, 6월), 68-98; 김성수,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 문맥으로 시편 15-24편 읽기", 『개혁신학과 교회』, 24 (2010), 53-85; 김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신학과 선교』, 9 (2005), 63-83.

중심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신학적 낭독서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8)</sup> 한편 김진규는 율슨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제사 권과 제오 권에 있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에 기초하여, 시편 89편의 현재 위치가 주는 의미는 메시아의 일시적 고난, 치욕과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제사 권과 제오 권에는 다윗 언약의 실패가 아닌 새롭게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sup>39)</sup> 또한 김형준은 시편 98편과 90편을 비롯한 제사권의 편집 의도에 대해 연구하여<sup>40)</sup> 제사 권에 있는 각각의 시들의 인접 시편들과의 구조 분석(cross-structure)을 통해 각각의 시들이 서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제사 권이 율법강조, 시온성의 파괴, 죄에 대한 언급들을 통해 포로기나 포로후기의 신학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sup>41)</sup> 이러한 연구들은 시편의 의미들을 풍성히 해주며 주변 시들과의 철저한 연관성과 통일성을 관찰하게 함으로서 결국 시편 전체를 짜임새 있는 한권의 책으로 보게 해 준다. 그러나 너무나도 철저한 어휘와 주제 분석은 우연성까지도 모두 편집자의 의도적인 것으로 보게 함으로서 지나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2) 외국 학자들의 경우

### ① 최종 형태 편집 의도

율슨은 제왕시와 지혜시에 의거하여 시편 전체의 편집 의도를 다윗 왕조의 실패를 기점으로 제 일 권에서 제 삼 권은 포로 전기로 제사 권과 제오 권은 포로 후기로 구분한다.<sup>42)</sup> 한편 디클레-윌포드(Nancy L.

38) 이은애, "시편 93-100편의 야훼-왕 찬양 시편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67-86.

39)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83-110.

40) 김형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시편 98편과 시편 제 IV권과의 관계", 『구약신학저널』 8 (2002년).

41) 김형준, "시편 제사권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 『성서사랑방』 17 (2001년), 1-21.

42) Gerald H. Wilson, 위의 책. 김진규는 율슨이 4-5권에 위치한 제왕시들의 주제 상 발전을 관찰하지 못했

DeClaiss-Walford)는 시편 전체를 오랜 기간 형성된 신앙공동체 설화로 보고, 제 일 권과 제 이 권을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 태동 이야기, 제 삼 권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기, 제 사 권과 제 오 권은 포로귀환과 이스라엘 재건 시대로 본다.<sup>43)</sup> 반면 헌터(Alastair G. Hunter)는 시편이 다윗 왕정만이 아닌, 야웨의 통치(시 3; 146)라는 주제를 핵심으로<sup>44)</sup> 포로 전기와 후기라는 차원을 넘어 종말론적 미래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미첼(David C. Mitchell) 역시 다윗 왕권을 메시아상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표현하는 근거로 보면서, 시편 편집을 다윗 왕조 보다는 종말론적 이해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sup>45)</sup> 한편 밀라드(M. Millard)는 시편이 쌓을 이루는 작은 시편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소그룹, 나아가 보다 큰 덩어리들, 즉 고라자손의 시집들 및 엘로히스트 시집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6)</sup>

---

음을 지적하면서 비록 시 89편은 메시아의 일시적인 고난, 치용, 거절을 의미하지만, 메시아 희망이 110; 132; 144편에서 다시 등장함을 관찰한다.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83-110.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35-40 참조.

- 43) Nancy L. DeClaiss-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44) Alastair G. Hunter, *An Introduction to the Psalms*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8), 26-27. 다시 말해 월슨의 제왕시 자체를 좀더 종말론적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45) Davi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 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그러나 쿤츠는 시편 제 일 권이 종말론적 특징이 없음을 지적하며 종말론적 편집 의도에 반대하며 한다. 한편 쟁어는 전체 시편 편집을 주도하는 신학은 지혜신학이라고 본다. Erich Zenger, "Der Psalter als Buch: Beobachtungen zu seiner Entstehung, Komposition und Function", in Erich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erders, 18; Freiburg: Herder, 1998), 1-57.
- 46) Davi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 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그러나 쿤츠는 시편 제 일 권이 종말론적 특징이 없음을 지적하며 종말론적 편집 의도에 반대하며 한다. 한편 쟁어는 전체 시편 편집을 주도하는 신학은 지혜신학이라고 본다. Erich Zenger, "Der Psalter als Buch: Beobachtungen zu seiner Entstehung, Komposition und Function", in Erich Zenger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erders, 18; Freiburg: Herder, 1998), 1-57.

## ② 소규모 단위 시 묶음들의 편집의도

맥케인(Clint J. McCann)은 제 일 권이 팔복에 근거하여 편집된 후, 나머지 제 이 권부터 제 오 권에 나오는 17개의 복은 제 일 권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up>47)</sup> 한편 콜(Rober L. Cole)은 제 삼 권을<sup>48)</sup>, 윌리스(Ronald E. Wallace)는 제 사 권을<sup>49)</sup>, 굴더(Michael D. Goulder)와 쟁어는 제 오 권을<sup>50)</sup> 버넷(Joel S. Burnett)은 엘로히스트 시집의 편집사를 연구했다.<sup>51)</sup> 그랜트(James A. Grant)는 제 일 권과 제 오 권을 신명기 17장 14-20절의 왕의 법을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한 신명기적 편집자에 의한 것으로,<sup>52)</sup> 굴더는 아삽의 시들이 앗시리아 위협에 대항하여 기원전 730-720년 베델에서 축제 제의 때 수집됐다고 본다.<sup>53)</sup> 크로우(Loren D. Crow)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본래는 시편 120편, 123편, 131편이 페르시아 초기에 수집되었고, 나머지 시들은 후기에 제사장 편집자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시온 중심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sup>54)</sup> 그러나 이렇듯 시편이 철저하게 계획된 배열과 편집이라는 연구

47) Clint, J. McCann,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Sheffield: JSOT Press, 1993). 또한 제 일 권의 경우는 벨링거의 연구를 참조할 것. William H. Bellinger, "Reading from the Beginning(Again):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in Joel S. Burnett, William H. Bellinger and William D. Tucker (eds.), 위의 책, 114-126.

48) Robert L. Cole,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SOT Sup,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9) Ronald E. Wallace, *The Narrative Effect of Book IV of the Hebrew Psalter* (SiBL, 112; New York: Peter Lang, 2007).

50) Michael D. Goulder, *The Psalms of the Return [Book V, Psalms 107-150]: Studies in the Psalter, IV* (JSOPT Sup, 2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Erich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0 (1998), 77-102.

51) Joel S. Burnett, "A Plea for David and Zion: The Elohist Psalter as Psalm Collection for the Temple's Restoration", in Joel S. Burnett, William H. Bellinger and William D. Tucker (eds.) 위의 책, 82-95.

52) James A. Grant, *The King as Exemplar: The Function of Deuteronomy's Kingship Law in the Shaping of the Book of Psalms* (Academis Biblica 17; Atlanta, GA: SBL, 2004).

53) Michael Goulder, *The Psalms of Asaph and the Pentateuch: Studies in the Psalter III* (JSOT Sup, 23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 Loren D. Crow, *The Songs of Ascent [Psalms 120-134]: Their Place in Israelite History and*

는 하위드가 지적인 바대로 우연한 것들 까지도 모두 의도적으로 몰아 붙이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sup>55)</sup>

### 3) 시편 신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한편으로는 시편 전체에서 하나의 주된 신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시편들에 나타난 다양한 시편 신학들을 주지하고 이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경우로 진행되고 있다.

#### (1) 한국 학자들의 경우

김이곤의 주장대로 시편은 그야말로 신학대전(Summa Theologia), 이른 바, “성서신학의 한 작은 학술 논문집”과도 같은 신학의 총체이다.<sup>56)</sup> 그러나 온갖 종류의 신학들의 복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통일된 시편신학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한국 학자들은 시편신학의 중심을 시온신학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먼저 김창대는 비록 제 삼 권에서는 탄식의 기조가 시온 통치의 희망을 가리고 있기는 하나, 시편 전체 신학은 시온 신학이라고 주장한다.<sup>57)</sup> 왕대일 또한 시편의 최종형태가 모세전승의 시내산과 다윗 전승의 시온산을 해석학적으로 연결한다고 보면서, 시편의 최종 형태를 제 오 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볼 때, 시편 신학은 그야말로 시온 중심이라고 해석한다.<sup>58)</sup>

---

*Religion*(SBLDS 148;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6).

55) David M. Howard, “The Psalms and current study”, in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 (eds.), 28.

56) 김이곤, “시편 19편에 나타난 ‘야훼의 자기계시’에 대한 찬양신학”, 『구약논단』 15 (2003년 10월), 9, 각주 1 인용.

57)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신학”,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63-82.

58) 왕대일, “시편의 신학-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10-29.

나아가 한국학자들 사이에서는 개별 시편이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신학사상들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온신학 및 다윗 왕조의 정치 신학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민족 탄원시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정치신학을 연구한다. 우선 박종수는 집단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 74편에서 창조신앙과 영원한 다윗 계약과 결합된 왕조 신학 및 시온 중심의 신앙 전통을 회복하려는 시온전승을 보며,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시온의 영원성과 우주적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시온의 노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9)</sup> 김회권은 시편 89편 속에서 다윗왕조의 정통성, 영속성을 염원하는 정치적 헤게모니, 즉 정치신학을 관찰한다.<sup>60)</sup> 김희석은 제 오 권에 속해 있는 144편이 제 삼 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묘사되는 다윗 언약이 하나님 왕권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회복되며 이러한 주제적 흐름을 위해 144편이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sup>61)</sup>

한국학자는 이러한 다윗왕조에 대한 정치신학 외에도 창조신학, 희망의 신학 및 인간과 죄와 관련한 신학을 연구한다. 우선 창조신학의 경우 이태훈은 베스터만의 분류대로 세계창조 모티브와 인간창조 모티브로 나누어서 관찰함으로써 세계창조모티브는 찬양시나 집단 탄원시와 같은 공동체 시에 나타나는 반면, 인간창조 모티브는 개인 탄원시와 같은 개인적인 시에 나타남을 발견하였다.<sup>62)</sup> 김이곤은 121편에서 보편적인 창조주 신앙을 이스라엘의 해방의 신인 야웨 신앙과 이념적으로 동일, 일치시키는 작업이 있음을 발견한다.<sup>63)</sup> 나아가 김이곤은 그의 탄

59) 박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전승", 『구약논단』 9 (2000년 10월), 167-189.

60) 김회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28 (2008년 6월), 107-127. 또한 노희원, "왕조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의 기원과 발전", 『현대와 신학』 22 (1997년), 1-25.

61) 김희석,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38 (2010년 12월), 71-92.

62) 이태훈, "시편에 나타난 창조 모티브", 『구약신학저널』 8 (2002년 6월), 127-142.

63) 김이곤, "시편 121편의 창조주 신앙", 『신학연구』 40 (1999년), 237-253.

원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전쟁 용사로서의 야웨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시편 신앙의 근본 현실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야웨에 대한 희망임을 주장하였다.<sup>64)</sup> 또한 탄원시와 찬양시에서 ‘응답의 신학’을 주장하기도 한다.<sup>65)</sup> 그 밖에 인간이해에 관하여는 시편 8편이 주로 연구대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용호는 시편 8편을 문학적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이 시에 나타난 인간은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형상을 가진 무한한 존재라고 주장한다.<sup>66)</sup> 한편 안근조는 죄 개념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참회시라고 불리는 7개의 시들 중에 죄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세 개의 시편 즉 6편, 102편 그리고 143편에 주목하면서 이들에 나타나있는 죄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죄악된 본성이나 범죄가 아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에 관한 문제임을 발견한다.<sup>67)</sup> 주목할 만한 것은 김태경의 경제 신학에 관한 연구인데, 가난의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가난한 자들의 경제신학과 부유한 자들의 경제 신학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그들은 경제 윤리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sup>68)</sup>

## (2) 외국 학자들의 경우

우선 게르스텐버거(Erhard S. Gerstenberger)는 시편 신학의 단일성 보다는 다양성을 본다. 즉 시편에는 다양한 시대상황에서 가족, 마을, 이웃, 국가 제의, 포로기 이후 배타적 공동체라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에서 발생한 다양한 신학들이 집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시

64) 김이곤, “시편시에 나타난 희망의 신학”, 『신학사상』 107 (1999년), 54-72.

65) 김이곤, 위의 글, (2006), 75-164.

66) 이용호, “시편 8편에 나타난 인간이해”,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10-28; 이희학, “시편 8편을 통해 본 구약성서의 인간이해”, 『구약신학저널』 4 (2001년 6월), 149-167; 방석중, “시편 8편 연구-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 『신학과 세계』 28 (1994년 봄), 8-24.

67) 안근조, “시편의 죄 개념 재고: 시 6, 102, 148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87-107.

68) 김태경, “시편의 경제 신학 및 경제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012년 7월), 75-98.

69) Erhard S. Gerstenberger, “Theologies in the Book of Psalms”, in Peter W. Flint and Patrick D.

편에서 이러한 신학의 다양성 보다는 어찌됐건 하나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신학을 찾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는데, 예를 들어 브루거만은 시편 신학의 핵심을 하나님의 두 개의 이미지의 상호 긴장, 즉 찬양과 감사 그리고 탄원이라고 보았다.<sup>70)</sup> 한편 메이즈(James L. Mays)는 야웨의 왕권을<sup>71)</sup>, 밀러(Patrick D. Miller)는 송영신학을<sup>72)</sup>, 쟈어의 의견을 따르는 월포드(Nancy L. DeClaisse-Walford)와 레몬(Joel M. LeMon)은 참회시를 핵심적인 시편 신학으로 보았다<sup>73)</sup>. 반면 크리취(Jerome F. D. Creach)는 의인의 운명을<sup>74)</sup>, 제이콥슨(Rolf A. Jacobson)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sup>75)</sup>, 맥칸은 가르침(토라)의 차원에서 시편 신학을 이해했고,<sup>76)</sup> 이밖에 크리포드(Richard Clifford), 휘쉬반(Michael Fishbane)과 베르린(Andrea Berlin)은 신화와 시편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sup>77)</sup>

---

Mille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 Sup 99; Leiden: Brill, 2005), 603–625.

- 70) Walter Brueggemann, "The Psalms in Theological Use: On Incommensurability and Mutuality", in Peter W. Flint and Patrick D. Miller (eds.), 위의 책, 581–602.
- 71) James L. Mays,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to the Psalm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 72) Patrick D. Miller, "The Psalter as a Book of Theology", in Herold W. Attridge and Martha E. Fassler (eds.), *Psalms in Community: Jewish and Christian Textual, Liturgical and Artistic Traditions* (SBLSynS, 25; Atlanta, GA: SBL, 2003), 87–98.
- 73) Nancy L. DeClaisse-Walford, "The Theology of the Imprecatory Psalms", in Rolf A. Jacobson (ed.),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the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72–92. Joel M. LeMon, "Saying Amen to Violent Psalms: Patterns of Prayer, Belief, and Action in the Psalter", in Rolf A. Jacobson (ed.), 위의 책, 93–199.
- 74) Jerome F. D. Creach, 'The destiny of the Righteous and the Theology of the Psalms,' in Rolf A. Jacobson (ed.), 위의 책, 49–61.
- 75) Rolf A. Jacobson,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The Theological Witness of the Psalter', in Rolf A. Jacobson (ed.), 위의 책, 111–137.
- 76) Clinton J. McCann, *Righteousness, Justice and Peace: A Contemporary Theology of the Psalms: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3 (2001), 111–131.
- 77) Michael Fishbane, *Biblical Myth and Rabbinic Mythma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Andrea Berlin, "Myth and Meaning in Psalm 114", in Joel S. Burnett, William H. Bellinger, William D. Tucker (eds.), 위의 책, 67–80. Richard Clifford, *Creation in the Psalms in*

#### 4) 시편과 고대근동

##### (1) 한국학자의 경우

김영진은 메소포타미아의 시가문학과 시편을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더 심도 깊게 밝히고자 한다. 그는 형식적, 구조적, 내용적 유사점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난 측면이 있는 반면 두 문화권의 신관에 따라 차이점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문학이 가나안 시문학, 특히 우가릿 시문학의 영향아래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78)</sup> 기민석은 시편 82편의 난해한 해석을 우가릿 문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면서 1절의 ‘신들의 모임’이라는 명칭을 우가릿 문헌의 신들의 명칭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야웨 종교와 신앙이 다신론적인 가나안의 토속종교와 아우러지고 토착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9)</sup> 한편 라틴어의 경우는 김정훈과 이상혁<sup>80)</sup>, 칠십인역 번역과 관련해서는 김정우<sup>81)</sup>, 불가타의 경우는 박철우가 연구하였고,<sup>82)</sup> 이환진과 김창선은 콤란 시편과 관련한 연구에 기여했다.<sup>83)</sup>

---

*Creation in the biblical tradition* (CBQMS 24; Washington, D.C.: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2), 57–69.

78) 김영진,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비교연구”, 『구약논단』 34 (2009년 12월), 88–103; 김영진, “시가문학의 고대 근동적 배경에 관한 연구”, (김영일 외 엮음), 위의 책, 59–74.

79) 기민석, “시 82편: 우가릿의 목소리, 이스라엘의 노래”,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111–129.

80) 김정훈, “슈트트가르트라틴어 시편 필사본(Bibl Fol 23 삼화의 순례시편(시편 120–134편) 읽기)”, 『부상장신논단』 12 (2012년 1월), 3–30; 이상혁, “칠십인역 시편의 엘로힘-양겔로스 번역과 번역기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 (2010년 4월), 5–26.

81) 김정우, “시편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콤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 (1997년 8월), 291–317.

82) 박철우, “시편 4–5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원칙 및 유용성 연구”,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108–130.

83) 김창선, “콤란시편(1QH)에 나타난 성령연구”, 『기독교사상』 422 (1994년 2월), 132–152; 이환진, “콤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 11QP<sup>sa</sup> 속의 일곱 시편”, 『신학과 세계』 53 (2005년 여름), 7–35.

## (2) 외국 학자의 경우

다후드(Mitchell Dahood)<sup>84)</sup>에 이어, 아비수(Yitshak Avishur)<sup>85)</sup>는 시편 29편, 74편 13-17절, 77편 14-21절, 89편 6-15절, 92편 9-10절이 우가리트 보다는 좀더 섬세하다고 주장하였고, 힐버(John W. Hilber)<sup>86)</sup>는 제왕시, 아삽의 시, 탄원시, 찬양시, 신뢰시에 나타나 있는 예언자적 말투가 앓시리아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웨리스(Peter W. Ferris)는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의 집단시들이 유사한 이유는 문화적인 측면인 아닌 상호적인 문화적 유산에 기인한다고 본 반면,<sup>87)</sup> 부자르(Walter C. Bouzard)는 문화적 연계성을 주장한다.<sup>88)</sup> 한편 톰스(Roger Tomes)<sup>89)</sup>는 시편의 개인 탄원시와 고대 마리, 아마르나, 우가리트, 니느웨의 세속적인 시들의 상응관계를, 렌지(Alen Lenzi)<sup>90)</sup>는 메소포타미아 기도문에 나타나는 신을 부르는 호칭을 시편 개인 탄원시들과 비교한다. 한편 브룩(George J. Book)<sup>91)</sup>, 흐린트(Peter W. Flint),<sup>92)</sup> 스완슨(Dwight D. Swanson)<sup>93)</sup>은 시편과 쿰란 공동체의 관계를 연구했다.

---

84) Mitchell Dahood, *Psalms 1-50* (AB 16;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6).

85) Yitshak Avishur, *Studies in Hebrew and Uaritic psalms* (Jerusalem: Mgnes, 1994).

86) John W. Hilber, *Culic Prophecy in he Psalms* (BZAW 353;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87) Peter W. Ferris, *The Genre of Communal Lament in the Bivle and he Ancient Near East* (SBLDS 127; Atlana, GA: scholars Press, 1992), 13.

88) Walter C. Bouzard Jr., *We have, Heard with our Ears, O God: Sources of the Communal Laments in the Psalms* (SBLDS, 159;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7), 201.

89) Roger Tomes, *I Have Written to he King, My Lord': Secular Abalogies for the Psalms* (Hebrew Bible Monographs 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5).

90) Alen Lenzi, "Invoking the God: Interpreting Invocations in Mesopotamian Prayers and biblical Laments of the Individua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9, 303-315.

91) George J. Brook, "The Psalms in Early Jewish Literature in the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in Steve Moyise and Maarteen J. J. Menken, *The Psalms in he New Testament*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4), 5-24.

92) Peter W. Flin,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STDJ 17; Leiden: Brill, 1997).

93) Dwight D. Swanson, "Qumran and the Psalms", in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e (eds.), 247-261.

## 5) 기타 언어적, 이데올로기적, 여성신학적 접근 및 시편과 신약의 연관성

### (1) 한국 학자의 경우

시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연구는 시편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주요 모티브인데 김종길은 시편 9-10편에서<sup>94)</sup>, 손세훈 역시 시인의 정체성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빈곤과 멸시, 착취 및 정치적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한 억압받는 자의 모습을 발견한다.<sup>95)</sup> 임태수는 개인탄원시들 중, 시편 22편, 35편, 109편, 140편에서 고난당하는 민중의 노래를 본다.<sup>96)</sup> 김태경은 시편의 경제신학을 연구함으로써 시편에서의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여 가난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경제신학과 경제 윤리를 발견하였다.<sup>97)</sup> 여성신학적 접근으로는 유연희<sup>98)</sup>가 보랏빛이라는 여성의 색깔을 사용하여 남성 위주의 한국 성경번역가들의 번역 성향을 꼬집는다. 유연희는 시편에 등장하는 여성이미지들을 뽑아내서 의도적으로든지 혹은 비의도적으로든지 간에 가부장적인 번역으로 수행되어 온 남성적 문헌으로서의 시편이 보랏빛 렌즈를 통해 진정한 번역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영미<sup>99)</sup>는 시편 128편에서는 아내를 집안 깊숙한 곳의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과 시편 131편에서는 이스라엘 자신이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유비됨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나아가 시편과 신약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로서 김정우는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을 통해

94) 김종길, "시편 9-10편에 나타난 민중의 저항 언어", 『신학사상』 137 (2007년 6월), 39-66.

95) 손세훈, 윗글.

96) 임태수, "민중의 노래 시편 - 개인 탄원시를 중심으로", (김영일 외 역음), 위의 책, 75-101.

97) 김태경, 윗글.

98) 유연희, "시편을 보랏빛 렌즈로 읽기: 시편의 여성 이미지와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25 (2009년 10월), 30-52.

99) 이영미, "시편의 은유이해", (김영일 외 역음), 윗글, 129-152.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연구했다.<sup>100)</sup> 왕대일 또한 시편은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예수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보기에 예수께서 시편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시편으로 기도하고 토대를 꽃피우는 토라의 길을 걷기를 권면한다.<sup>101)</sup>

## (2) 외국 학자의 경우

휴그(Martin R. Hauge)는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8개의 개인시들의 시편기자가 삶과 죽음의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았다.<sup>102)</sup> 코트릴(Amy C. Cottrill)은 문화 인류학적, 사회 과학적, 문학적 비평을 통하여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시인과 적 그리고 청중들 간의 수사학적 관계 구조를 강조한다.<sup>103)</sup> 한편 브라운(William P. Brown)은 시에서 은유가 지니는 언어적 힘을,<sup>104)</sup> 부처(Susanne Gillmayr-Bucher)는 몸 이미지가 탄원자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문학적 예술임을 주장한다.<sup>105)</sup> 나아가 넬(Paul J. Nel)<sup>106)</sup>과 쿤츠<sup>107)</sup>는 동물 이미지가 시편기자의 자기 이해, 다른 인간 이해 그리고 신 이

100)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 (1999년 가을), 102-122.

101) 왕대일, 윗글, 268.

102) Martin R. Hauge, *Between Sheol and Temple: Motif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I-Psalms* (JSOT Sup, 17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03) Amy C. Cottrill, *Language, Power and Identity in the Lament Psalms of the Individual* (LHB/OTS, 493;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8).

104) William P. Brown,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105) Susanne Gillmayr-Bucher, "Body Images in the Psalm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8, (2004), 301-326. 또한 Andy L. Warren-Rothlin, "Body Idioms and the Psalms", in David Firth and Philip .S. Johnstone (eds.), 위의 책, 195-212.

106) Paul J. Nel, "Animal Imagery in Psalm 2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 (2005), 151-159.

107) John K. Kuntz, "Growling Dogs and Thirsty Deer: Uses of Animal Imagery in Psalmic Rhetoric", in Robert L. Foster and David M. Howard (eds.), *My Words are Lovely: Studies in the Rhetoric of the Psalms* (LHB/DTS 467; New York and London: T & T Clark, 2008), 46-62.

해를 새롭게 포착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만돌포(Carleen Mandolfo)는 시에 함축되어 있는 내적인 대화 측면을 강조하였고,<sup>108)</sup> 제이콥슨은 직접 대화, 즉 적, 시편기자,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대화적 기능을 관찰했다.<sup>109)</sup> 한편 일지글러(Hubert Irsigler)는 지혜시에 나타난 가난한 자의 문제를,<sup>110)</sup> 터커(William D. Tucker)는 시편 2-89편의 가난한 자라는 용어가 민주화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보았다.<sup>111)</sup> 한편 이튼(John H. Eaton)은 시편 저자가 여성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sup>112)</sup> 나아가 브라울릭(George Braulik)은 시편이 기독교론적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sup>113)</sup> 신약에 인용된 시편과 관련하여 마가복음의 경우는 왓츠(Rikk Watts),<sup>114)</sup>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도블(Peter Doble),<sup>115)</sup> 사복음서는 데일리 덴톤(Margart Daly-Denton),<sup>116)</sup>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리츠(Thorsten Motitz),<sup>117)</sup> 히브리서는 아트리지(Herald W. Attridge)가 연구했다.<sup>118)</sup> 특히 아트리지는 시편을 인용하는 신약성서의 수난부분을 연구하였다.<sup>119)</sup>

- 
- 108) Carleen Mandolfo, *God in the Dock: Dialogic Tension in the Psalms of Lament* (JSOT Sup 3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109) Rolf A. Jacobson, 'Many are saying': *The Function of Direct Discourse in the Hebrew Psalter* (JSOT Sup, 397; London: T&T Clark, 2004).
- 110) Hubert Irsigler, "Die Suche nach Gerechtigkeir in den Psalmen 37, 49 und 73", in Hubert Irsigler, *Vom Adamsohn zum Immanuel* (St. Ottilien: EOS-Verl, 1997), 71-100.
- 111) William D. Tucker, "Democratization and the Language of the Poor in Psalms 2-89",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5, 161-178.
- 112) John H. Eaton, *The psalms: A historical and Spiritual Commentary, with an Introduction and New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3).
- 113) George Braulik, 'Christologische Verstandnis der Psalmen-schon im Alten Testament?', in Klenzman Richter and Benedikt Kranemann (eds.), *Christology der Liturgie: Der Gottesdienst der Kirche-Christusbekennntnis und sinaibund* (QD 159; Freiburg: Herder, 1995), 57-86.
- 114) Rikk Watts, "The Psalms in Mark's Gospel", in Steve Moyise and M.aarteen J. J. Menken (eds.) *읽글*, 25-46.
- 115) Peter Doble, "The Psalms in Luke-acts", *읽글*, 83-118.
- 116) Margaret Daly-Denton, "The Psalms in John's Gospel", *읽글*, 119-138.
- 117) Thorsten Moritz, "The Psalms in Ephesians and Colossians", *읽글*, 181-196.
- 118) Harold W. Attridge, "The psalms in Hebrews", *읽글*, 197-212.
- 119) Harold W. Attridge, "Giving Voice to Jesus: Use of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in

## 6) 시편의 우리말 번역 문제

시편의 우리말 번역 문제는 주로 김정우, 김이곤, 박동현과 이환진에 의해 검토되어왔다. 우선 김이곤은 개정 개정판 시편 1편의 ‘하가를 ‘묵상하다’가 아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sup>120)</sup> 김정우는 히브리 시의 특징을 살린 번역의 원칙, 특히 히브리 시의 구성적 특징인 ‘평행법’ 번역 문제를 지적하는데,<sup>121)</sup> 우리말 초기 시편번역본들, 즉 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말 번역본이 히브리 시의 특징인 평행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새 번역에서는 시와 산문을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구별하는 편집적 배려가 있기를 소망했다.<sup>122)</sup> 또한 본문 비평의 문제<sup>123)</sup> 및 시편 2편을 중심으로 우리말 관주 성경의 역사를 정리하고, 개역 성경의 새로운 관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sup>124)</sup> 박동현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의 관주의 신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주가 본문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문제가 되는지를 따져 본격적인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sup>125)</sup> 이환진은 시편의 우리말 번역을 시도하며 나아가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을 평가한다.<sup>126)</sup> 또한 조선(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구약

---

Harold W. Attridge and Martha E. Fessler (eds.), 위의 책, 101-112.

120) 김이곤, “시편 1편의 ‘하가’와 ‘나벨’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2 (1997년 2월), 43-50.

121)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년 10월), 7-28.

122)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년 4월), 7-34. 또한 김정우, “BHS, 시편의 본문비평장치해설”, 『성경원문연구』 4 (1998년 2월), 24-34.

123)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년 2월), 7-40.

124) 김정우, “개정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관주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과 새로운 전망, 시편 2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8 (2006년), 7-23.

125) 박동현,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년 1월), 198-229.

126) 이환진, 「시편 풀림」 (서울 :한모임, 2005);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김영일 외 엮음), 『룻글』 413-453.

본문 중에서 1897년에 번역하여 실은 시편 32편과 122편을 분석하며 성경공부용 본문인 시편 32편은 탁사가 한문 대표본을 저본으로 구약 본문을 번역하였을 가능성을 밝히기도 하였다.<sup>127)</sup> 이환진은 시편 풀림이라는 책에서 시편을 우리말로 아름답게 번역한다. 풀림이라는 19세기 톨리문헌에서 해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여 2000년 전 후로 꾸준히 읽어온 히브리성경 마소라본문의 시편을 번역한다.<sup>128)</sup> 박철우는 히에로니무스의 시편 4-5편의 문학분석을 통해서 번역의 특징을 관찰한 후, 히브리 시의 문학적 우수성을 라틴어 성경에 번역하고자 한 노력을 관찰하여 현대 성경번역에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29)</sup> 시편을 우리말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서로 읽고자 하는 노력 또한 있었으니, 조태영은 시편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아리랑의 울림, 아리랑 고개 넘기 모티브들이 가득 들어 있음을 발견하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아픔과 분단과 충일의 갈망이 새 나라 새 역사에 대한 갈망이 상호 맞닿아 있음을 관찰한 것이다.<sup>130)</sup>

### 3. 나가는 말

1990년 이후 시편 연구는 더욱 더 공식적인 접근방식에 무게 중심을 두며 진척되고 있기 에 시의 양식, 저자, 삶의 자리를 묻는 통시적인 양식비평 방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주춤하고 있다. 물론 양식비평은 궁궐이 미흡하게 연구했던 개인 탄원시의 구조 및 모티브 변화

127) 이환진, "성서 번역가 탁사 최병현의 잠언(23장)과 시편(32편, 122편)과 역대하(6-7장) 번역문 분석(조선대 한)", 『성경원문연구』 17 (2005년 10월), 45-71.

128) 부록으로 쿨란 제 11동굴의 시편 두루마리속에 들어있는 일곱시편과 한 개의 글이 번역되어져 있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아람어 마르 파피루스가 시편 20편과 너무나 비슷하여 비교하여 읽어보도록 옮겨놓고 있다.

129) 박철우, 시편 4-5편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 원칙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108-131.

130) 조태영, "시편에서 듣는 아리랑," (김영일 외 역음), 위의 책, 507-533.

와 지혜시 및 제왕시 연구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이렇듯 통시적인 연구가 너무나 무시된 채, 오로지 신문학적 접근 방법에 치중한 연구 경향을 위협하다고 보는 목소리 또한 없지는 않으나, 이와 동시에 시 본문에 대한 공시적이고 다양한 열린 해석이 주는 폭넓은 풍성함과 유용성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시편 연구는 양식 비평이 단지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는데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편으로는 개별시, 혹은 시 묶음들, 혹은 시편 전체의 현재 위치와 배열이 말해 주는 체계적인 편집의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 개별시의 구조, 언어, 이미지가 주는 의미에 대한 연구 쪽으로 더욱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시편 연구의 다양성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특히 우리말 번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 학문적 접근 보다는 대중을 아우르는 신앙적 시편 주석서들, 특히 개인 탄원시를 중심으로 한 신앙적 색채를 띤 글이 의미하는 바, 시편 연구야 말로 학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신앙과 묵상의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다양한 해석 방법이 시편 이해를 풍성히 해 주고, 동일한 개별 시편에도 복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시편에 대한 해석학적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이제 어느 것만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다양한 연구 방식들은 서로 상충되기 보다는 상호 보충적이라고 보여 진다.

#### 4. 참고문헌

김래용, “78편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조, 장르, 삶의 자리, 의도”, 「구약논단」33 (2009년 9월), 29-48.

김성수 “문맥으로 시 25-33편 읽기”, 「구약논단」48 (2013년, 6월),

68-98.

김영진, “시편과 메소포타미아 시가문학의 비교연구”, 「구약논단」 34 (2009년 12월), 88-103.

김이곤, “시편 6편에 나타난 분위기 급전의 동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 (1995년 9월), 181-204.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년 4월), 7-34.

\_\_\_\_\_,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년 10월), 7-28.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83-110.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신학”, 「구약논단」 32 (2009년 6월), 63-82.

김태경,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른 탄원의 변화 과정 연구”, 「구약논단」 45 (2012년 9월), 207-234.

김희석, “시 44편에 나타난 다윗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구약논단」 38 (2010년 12월), 71-92.

박동현,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년 1월), 198-229.

박철우, “시편 4-5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원칙 및 유용성 연구”, 「구약논단」 33 (2009년 9월), 108-130.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36 (2010년 6월), 92-115.

\_\_\_\_\_, “시편 개인 탄원시 이해: 시인과 원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15 (2003년 10월), 65-94.

안근조, “시편의 죄 개념 재고: 시 6,102, 148편을 중심으로”, 「구약논

- 단」33 (2009년 9월), 87-107.
- 왕대일, “시편의 신학-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32 (2009년 6월), 10-29.
- \_\_\_\_\_,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토라로 토다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유연희, “시편을 보랏빛 렌즈로 읽기: 시편의 여성 이미지와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25 (2009년 10월), 30-52.
-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32 (2009년 6월), 30-62.
- 이성훈, “탄원에서 구원의 찬양으로: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34 (2004년 7월), 191-214.
- 이은애, “시편 93-100편의 야훼-왕 찬양 시편의 구조와 역할”, 「구약논단」33 (2009년 9월), 67-86.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철학 번역 평가” (김영일 외 엮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 2006), 413-453.
- Attridge, Herold W./Fassler, Martha E.(eds.), *Psalms in Community: Jewish and Christian Textual, Liturgical and Artistic Traditions* (SBLSynS, 25; Atlanta, GA: SBL, 2003).
- Brown, William P.,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 Clifford, Richard, *Creation in the Psalms in Creation in the biblical tradition* (CBQMS 24; Washington, D.C.: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92), 57-69.
- Cole, Robert L., *The Shape and Message of Book III (Psalms 73-89)* (JSOT Sup, 3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Crow, Loren D., *The Songs of Ascent (Psalms 120-134): Their Place in Israelite History and Religion* (SBLDS 148;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6).

- Day, John, *Wisdom in Ancient Israel: Essays in Honour of J. A. Eme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52-160.
- Declaisse-Walford, Nancy L.,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Dell, Katharine. J., "I will solve my riddle to the music of the lyre:(Psalm xlix 4(5)): A cultic setting for Wisdom Psalms", *Vetus Teatamentum* LIV. 4 (1998), 445-458.
- Firth, David G. *Surrendering Retribution in the Psalms: Responses to Violence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5).
- \_\_\_\_\_, /Johnstone, Philip S.(eds.),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5)
- Goulder, Michael, *The Psalms of Asaph and the Pentateuch: Studies in the Psalter III*, (JSOT Sup, 23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Grant, James A., *The King as Exemplar: The Function of Deuteronomy's Kingship Law in the Shaping of the Book of Psalms* (Academis Biblica 17; Atlanta, GA: SBL, 2004).
- Haney, Michael R., *Text and Concept Analysis in Royal Psalms* (SiBL, 30; New York: Peter Lang, 2002).
- Hunter, Alastair G., *An Introduction to the Psalms*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8),
- Irsigler, Hubert, "Die Suche nach Gerechtigkeit in den Psalmen 37, 49 und 73", in Irsigler, Hubert, *Vom Adamssohn zum Immanuel* (St. Ottilien: EOS-Verl, 1997), 71-100.
- Jacobson, Rolf A., *Many are saying': The Function of Direct Discourse in the Hebrew Psalter* (JSOT Sup, 397; London: T&T Clark, 2004).

- \_\_\_\_\_ (ed.),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the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Kraus, Hans J., *Psalmen 1: Psalmen 1-59* (BKA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Mays, James L., *The Lord Reigns: A Theological Handbook to the Psalm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 McCann, Clint J.,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Sheffield: JSOT Press, 1993).
- Mandolfo, Carleen, *God in the Dock: Dialogic Tension in the Psalms of Lament* (JSOT Sup. 3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 Millard, Matthias,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9; Tübingen: Mohr-Siebeck, 1994).
- Mitchell, Davi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 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Moyise, Steve and Menken, Maarten J. J.,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4).
- Perdue, Leo G., *Wisdom and Cult: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ws of Cult in the Wisdom Literatures of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BLDS, 30;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 Saur, Markus, *Die Königpsalmen* (BZAW 340;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Starbuck, Scott R. A.,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BLDS, 172; Atlanta, CA: SBL, 1999).

- Villanueva, Federico G., *The 'Uncertainty of a bearing': A Study of the sudden Change of Mood in the Psalms of Lament* (VT Sup. 12; Leiden: Brill, 2008).
- Wallace, Ronald E., *The Narrative Effect of Book IV of the Hebrew Psalter* (SIBL 112; New York: Peter Lang, 2007).
- Westermann, Claus, *Lob and Klage in den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 Zenger, Erich (ed.) *Der Psalter in Judentum und Christentum* (Herders, 18; Freiburg: Herder, 1998).

## 검색어

시편연구사

양식비평

편집비평

시편신학

문학비평

# The Psalms research in current Study since the 1990's

Tae-Kyung Kim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Minister University of Dr. Theo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a number of current studies in Psalm studies since 1990s and provide an overall perspective. For this study I have examined the major psalm studies of foreign scholars and Korean scholars at the same time. Using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methodologies, the current Psalm studie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diachronic methodology, namely the classical form critic including the questions about Gattung, the original life setting (*Sitz im Leben*) is not predominant any more in Psalms studies. Merely, the several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in the area of individual lament Psalms, wisdom Psalms and royal psalms, which seem to be fully explored by Herman Gunkel. On the contrary, the synchronic research has continually undergone in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First, most researches focus on the general linguistic approaches, namely a major feature of Hebrew poetry, language, image, structure, syntactical construction. Second, the most prevailing interest in Psalm researchers has to do with the questions about the editorial intention of the final form of the tex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theological intention of the current position of the individual, Psalm or small unit of several psalms or the final form of the Psalm in the current position.

Further, along with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approaches, the psalm studies have employed a range of different methods, namely ideologic, feministic and ecological approaches. Recently, several scholars tend to concern this tendency. Despite of this concern, the remarkably various methodologies enrich the Psalm studies. In fact, the methodologies are not contrary to each other, but cooperative. Moreover, it seems that this tendency will go further.

### **Keywords**

Psalms research

form criticism

the shape of the Psalter

the Psalm Theology

rhetorical criticism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